

#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동반자, 디자인

글\_나 건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학장 knah@idas.ac.kr

21세기에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은 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한편, 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는 과학의 발전을 자극하는 상승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학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 못지않게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있으니 이는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 및 요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디자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과학과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핵심은 과학(DNA)과 기술(Digital)에 대한 디자인(Design)의 접목으로 과학 기술의 완성을 이룸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주어진 목적을 조형(造形)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자인이란 보기 좋은 외형만을 추구하는 예술적 행위라고 생각하여 왔다. '디자인 = 예술'이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고 이에 따라서 디자인은 과학과 기술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디자인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본질 또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경영학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업은 필수조건이다. 또한 디자인에 많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과 최신 기술의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제 '디자인 = 과학/기술'이라는 명제가 성립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은 국가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절대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능형 홈 네트워크 및 로봇,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신약 등을 포함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핵심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들 10대 과제의 대부분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기능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디자인은 인간 사용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감성 만족을 추구하여 과학기술의 완성을 이루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Science + Technology + Design = Standard

필자는 몇 년 전 국내 모 벤처회사가 개발한 실험 장비 수준의 물건(?)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히트 상품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이 사실은 과학기술과 디자인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 Design




IEEE 1394 HUB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결론적으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디자인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해 본다.

과학(Science) + 기술(Technology) + 디자인(Design) = STD(Standard)

즉, 과학과 기술 그리고 디자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은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극대화

를 위한 과학 기술 및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다! 



글쓴이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석사, 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을 거쳐 미국 Tufts 대학에서 공업디자인으로 박사 학위 및 Post-Doc Fellow를 마친 후 2000년에 귀국, 현재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IDAS) 학장으로 재직중이다.